

分斷狀況과 文學的 形象化

—吳永壽의 「머루」에서 「幻想의 石像」까지

金 永 和*

I

1945년 8월 이래 우리의 國土와 民族은 分斷狀況 아래 있다. 따라서 분단에 따른 여러 문제는 우리 민족을 고통과 절망 속에 있게 만든다.

이런 분단 상황은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개인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고, 世代에 따라 認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분단 상황이 그의 삶 자체를 밑에서부터 붕괴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단이 가져 온 고통을 덜 느끼는 사람도 있다. 특히 6·25를 체험한 세대와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세대와는 그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분단 상황을 우리 민족의 극복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고뇌하는 사람이 있는 대신 분단 상황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6·25를 체험했거나 分斷時代를 살고 있는 작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단 상황에 대한 체험이 다르고 그 인식에 있어서도 다르다. 때문에 여러 작가들이 분단 상황, 또는 6·25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지만 이를 보는 시각이나 形象化的 정도가 각각 다르다.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시대의 인식이 각각 다르고,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작품을 쓴 작가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가의 의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吳永壽(1914~1979)는 32세 때 光復과 分斷을 경험했으며 37세 때 6·25를 체험했다. 특히 이때 그는 유 치환과 함께 동부전선에 從軍한 바 있다.¹⁾ 58세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운동 적십자

1) 吳永壽年譜. 「新韓國文學全集(21)」(語文閣, 1975), p. 545.

* 人文大學 副教授

회담 선언을 목격했고, 59세 때 7·4 남북공동선언을 지켜 보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분단시대를 끌고루 체험한 작가에 속한다. 30이 넘어서 체험한 분단시대를 그는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해 놓았을까.

吳永壽는 人情美談에 능한 작가요, 抒情的이며 인간 심리의 미묘한 세계를 탁월하게 묘사하는 작가로 알려진 대신 社會나 現實 또는 歷史의 문제에는 관심을 적게 가진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의 뛰어난 작품들이 대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분단시대를 체험한 작가로서 분단 상황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글은 분단시대를 폭 넓게 체험했다고 볼 수 있는 오 영수의 작품들을 주의 깊게 읽고, 분단 상황을 어떻게 형상화해 놓았는지 검증해 보려는 데 있다. 분단 상황과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는 시대를 넘어 논의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이 글은 출발한다.

II

「머루」(1950. 4, 新天地), 「대장간 두칠이」(1950·民主新報), 「後日譚」(1960. 6, 現代文學)은 6·25가 일어나기 이전, 40年代末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6·25와는 관계없이 빨치산의 준동에 따른 서민들의 희생과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끼어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머루」에 나오는 <석이 엄마>는 남편을 잃은 과부다. 그녀는 개화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래식 교육조차 받은 일이 없다. 깊은 산골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왕조시대라면 백성이고, 40년대엔 소박한 농민의 아내다.

남편이 죽자 어린 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무사하게 자라는 것이 유일한 꿈이다. 특히 아들인 <석이>가 자라면서 농사일도 제법 잘 했고, 어른스러워가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다. 그런 <석이>가 18세가 되자 같은 마을의 동갑나기인 <분이>와 결혼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로서는 광복이니 분단이니 하는 것을 알 만한 지적 능력이 없었다. 오직 아이들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소박한 사람이다. 이런 그들에게 빨치산의 출현으로 그들의 삶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세상 일이란 석이 엄마나, 석이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석이가 뒷간 옆에 달아 붙여서 소 마굿간을 세우려고 다칠 무렵해서 용숫골로 연목 베러 간 바로 그 날이었다. / 동네 앞 논들에서 난데없이 두 방의 총소리가 들려 왔다. 동네 사람들은 읍에서 산채지 사냥이나 온 울 알고 걸목으로 나와 봤다. 그러나 너무나 이윽 일이었다. 각가지 복장을 한 칠 팔명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총을 든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 “우리들은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빨치산들이다. 우리에게 협력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말테다.!” / 이렇게 고향을 지르고 외치자 일제히 와야하고 동네 안으로 달려 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만 엎어지락 자빠지락 골목 안으로 논들 개굴창으로 산비탈로 마구 달아났다.²⁾(가점=필자)

2) <머루>, 吳永壽代表作選集·1(東林出版社, 1974), p.28.

이 인용문을 보면 주민들은 총소리를 듣고서도 사냥을 우선 생각하고 있으며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협력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소리에 도망을 치고 있지만 이 소설 전체를 음미하면서 읽으면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전혀 없는 소박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40年代末 대다수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분단 상황이 가져온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터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변화하는 시대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빨치산이 준동하는 지대를 미리 떠났을 것이다.

이런 소박한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은 이 소설에서는 다루고 있다.

「대장간 두철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두철이〉은 뱀넛골이라는 두메 마을의 정구장 집 머슴이다. 설혼 들이 되도록 총각이었다. 주인의 주선으로 식모 아이 〈순이〉와 혼례식을 올렸는데 신부를 아끼는 〈두철이〉의 마음이 남달랐고, 그래서 그의 소박한 꿈은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두철이는 순이가 좋았다. 애정은 된장처럼 끓었다. 닭울음 소리와 함께 품속을 빠져나간 순이가 종일 애절한 두철이었다. 밤이면 팔꿈을 세워 빼고 졸음을 쫓으며 순이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동안이 더 없이 안타까운 두철이었다. 구정물 버리는 소리가 나고 부엌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서라야 들어오는 순이었다. ……이런 날 밤일수록 순이의 치마폭에 풍기는 구정물 냄새가 두철이는 더 구수했다. 순이는 벌써 홀몸이 아니었다.³⁾

이 소설에 나오는 부부도 개화의 세려나 유교적 교양을 터득하지 못한 소박한 서민이다. 종과 식모라는 신분이 암시하듯 지적 능력도 없다. 그러기에 그들의 꿈도 소박하다. 그것은 일을 부지런히 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더 나은 대접을 받겠다는 것과 그들의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역사의 격랑 속에 휩쓸린다.

불과 이십 리 들어간 배내(浣川) 마을에 산사람들이 내려와서 적지를 났다는 소문이 돌리고 이틀만 인 한밤중이었다. 미친듯이 짚어대는 개소리에 두철이가 잠을 깨고 보니 어느 새 주인은 결박을 당했고 지붕에는 불이 돌았다. 두철이는 순이의 손목을 잡고 뒷문으로 뛰었다. 대밭 속을 헤치고 선불 맞은 산채저처럼 마구 내달았다. 몇 시간 뒤 K가도에 닿았을 때는 동녘이 흰했다.⁴⁾

빨치산을 피해 임신한 아내를 끌고 도망갔지만 그의 아내는 떨 수 없었다. 지게라도 얻어 아내를 업고 갈려고 마을에 들어갔다 경찰관에게 체포된다.

첫째는 절도 혐의로, 둘째는 빨치산이 출몰하는 범넛골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져 빨치산이 아닌가 하는 혐의에서였다. 특히 절도 혐의보다 빨치산 혐의로 엿새 동안 유치장에 갇혔다 나왔을 때 그는 그토록 아끼던 아내가 죽었음을 알았다.

3) 〈대장간 두철이〉, 選集·1, pp.84~85.

4) 같은 작품, 選集·1, p.85.

「머루」와 「대장간 두철이」에서 다루어진 것은 현실이나 역사 인식 능력조차 없는 소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의 격랑—분단 상황—속에 희생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다. 빨치산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을 넘어섰다는 데 단순한 반공문학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것은 40年代末에 흔했던 사실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한 시대의 시대상을 재현한 것 이상이 없다. 분단 상황에 대한 작가의 깊은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데 감동의 효과가 적다.

「後日譚」은 1948년 4월 일어났던 이른바 제주도의 4·3사건의 여파를 소설화한 작품이다.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낀 세 사람들의 사정을 오 영수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여인의 남편은 착실한 국민 학교 교사였다.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난 어느 날 한밤중이었다. /잠을 깨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총구멍이 가슴을 노리고 있었다. 끄팍 말라고 했다. 끄팍 할래도 몸둥이기가 굳어지고 혀가 오그라들었다. 옆에 누운 남편도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식량을 털고 옷가지를 걷어 썼다. 모두 세 사람이었다. /만일 경찰에 고자질이라도 하는 날에는 볼죽음을 당할 테니 그리 말라고 했다. /세 사람이 나가고 얼마 안 있어 총소리가 연달아 여러 번 들렸다.⁵⁾

평화스런 가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빨치산이 나타나 총부리를 대고 식량과 옷가지를 가지고 가면 서 경찰에 고발하면 몰살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에 이 교사 부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쪽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쌀과 옷가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화근이다.

다음 날 내외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부역죄라고 했다. 빨치산의 앞잡이라고도 했다. 누구누구더냐고 이름을 대라고 했다. 그 동안 몇 번이나 보급을 대 주었으며 이번에는 무슨 연락이 있었느냐. — 바로 대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 당한 대로만 말을 했다. 도시 영웅한 모를 일들이었다. 그래서 모진 매를 맞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고문을 당하다가 이십 일만에 풀려 나왔으나, 남편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⁶⁾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끼어 양쪽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소설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인은 다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처형된다. 집단 처형이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은 죽지 않고 살아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숨어지내다 그 집에 방을 얻어 살고있는 <박 중위>에게 전후 사정을 털어 놓고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휴머니스트인 <박 중위>는 그 일을 위해 애쓴다. 그러나 6·25가 일어나자 다시 체포되어 바다 멀리까지 실고 가 수장된다.

5) <後日譚>, 選集·3, p. 321.

6) 같은 작품, 選集·3, pp. 321~322.

혼란기에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 작가는 분단 상황이 가져온 비극의 의미를 묻고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선량한 사람들이 왜 이처럼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하는가를 물음으로써 역사와 현실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 이 작품이다.

「머루」와 「대장간 두칠이」가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後日譚」은 빨치산과 경찰, 특히 경찰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形象化해 놓고 있다.

결국 分斷狀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좌·우의 갈등 속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그려 놓음으로써 한 時代의 어두운 斷面을 제시한 것이 이 소설들이다.

III

「두 피난민」(1951, 週刊國際), 「霜春」(1951, 文藝), 「雪夜」(1951, 協同), 「東部戰線=從軍記」(1955. 3, 現代文學), 「내일의 삽화」(1958. 9, 思想界), 「메아리」(1959. 4, 現代文學) 등은 어떤 형태로든 6·25 전쟁과 관련이 있다.

「두 피난민」, 「霜春」, 「메아리」는 가난하고 無知하며 선량한 庶民들이 6·25와 피난생활을 어떻게 겪는가를 드러낸다.

네 살짜리 앓는 놈을 한팔에 끼고 그의 아내를 부축하면서 두경 없는 차 위에 사생 결단 오르기는 했다. 반대 방향으로 불어 닥치는 동짓달 바람은 살을 찢고 벼를 깎듯 차가웠다. 그 날밤 어린 아이가 얼어 죽고 새벽에 노인이 또 죽었다. 마동이는 식이(아이 이름)를 품속에 자꾸만 껴 안았다. 식이는 불덩이 같이 몸이 달았다. 엿을 쥐어 쥐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밤 식이는 마동이 가슴을 할퀴면서 숨이 졌다. 불덩이 같던 몸둥어리는 어름장 같이 식어 갔다. 그러나 마동이라도 그의 아내도 별 말이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 때야말로 허기와 추위밖에는 아무런 귀찮도 경황도 없었다. 차가 추풍령 마루에 이르자 마동이는 뺨뺨이 굳은 조그만 시체를 머리와 다리 밑에 팔을 받치고 비틀거리면서……무슨 못쓸 물건이나 처럼 어둠 속에 내 던져 버렸다.⁷⁾

전쟁이 일어나고 남으로 밀려 내려오자 사람들은 피난하기 시작했다.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 격류에 휩쓸려 가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제시된다.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격랑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길이 엄마가 이 마을 앞 과수원 움막에 들기는 작년 한 겨울 두 번째 서울을 내주게 된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남편과는 영등포에서 갈렸다. / “부산으로 가라니……” / [중략] 했을 뿐 남편은 언제 오는 기약도 없었다. 얼마 안 되는 노비와 떡보자기를 서로 가지라고 심강이만 하다가 남편은 제이 국민병 훈련소가 방위군 대기소엔가로 집단 소개를 해 갔고, 길이 엄마는 그 열흘 뒤에 간신히 부산

7) <두 피난민>, 選集·2, p. 73.

진 역에 닿았다. [중략] 다음날부터 길이 엄마는 역에 나가 피난민들 사대 속에서 남편을 찾고 기다렸다. 열흘이 지났다. 또 보름이 지났다. 날마다 피난민들은 홍수처럼 쏟아졌으나 그의 남편은 오지 않았다.⁸⁾

「두 피난민」이 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사람의 회생을 그렸다면,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이 헤어지고 있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갑자기 당한 일이고, 지적 능력이 없어서 달라진 상황(전쟁과 피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극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離散家族이 슬하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역사의 격류에 휩쓸리는 피동적 인간상들이다.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 아무리 버둥겨려 봐도 살 수가 없었다. 살아갈 재간이 없었다.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겠으나 할 짓이, 할 일이 없었다. /약만 쓰면 살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 못해 아이까지 죽었다. /영선고개 관갯집마저 헐리게 되자 별 작정도 없이 그만 떠 버렸다. /진주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 /목수나 미장이 뒷일꾼으로도 다니 봤다. 한 달에도 며칠, 그나마도 작자가 달아 품삯은 고사하고라도 제 뭍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가 양은 그릇을 받아 이고 장사로도 나서 봤다. 주로 촌마을을 찾아다녔다.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 /할 일이 없었다. 살아갈 수가 없었다.⁹⁾

이 소설은 부산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가를 제시한다. 빈곤과 질병 속에 발버둥치다 거기서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서민층들은 그 원인과 경과 등을 따져보거나 그것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가 갖는 의미, 분단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폭넓은 성찰을 할 기회도 능력도 없는 채 6·25의 격랑 속에 그들의 삶이 함몰되고 있다.

이런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霜春」의 〈길이 엄마〉를 통해서 알아 본다.

충청북도 이곡이 고향인 길이 엄마는 열 살 때 그의 양친을 따라 일본 대관으로 갔다. 열 네 살부터 방직 공장에 여직공으로 다니다가 스물 한 살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방이 되자 돌아와서 그의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부평 어느 산골에서 살았다.¹⁰⁾

이런 〈길이 엄마〉의 삶은 「두 피난민」의 〈마동〉의 경우나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아내가 도망가 버린 「雪夜」의 〈역수〉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근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근대적인 것의 세례를 받지 못해 아는 것이 적고, 둘째 知的 思惟能力이 不足하여 현실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며, 셋째 가난하고

8) 〈霜春〉, 選集·1, pp.98~99.

9) 〈메아리〉, 選集·3, pp.69~70.

10) 〈霜春〉, 選集·1, p.103.

네째 善良하고 소박하다는 데 있다. 왕조시대라면 常民에 속하고 식민지시대에는 가난한 피지배 민족이며, 광복후에는 빈궁과 무지 속에 살고 있는 庶民들이다.

1950년대 한국인 대다수가 이 계층에 속한다. 왕조시대나 식민지시대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서민층이 6·25의 격변 속에 어떻게 對應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격류에 휩쓸리는 것이요, 그 격변 속에 그들의 삶이 파멸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당대의 대다수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런 격변 속에 이데올로기나 체제의 선택도 주체적인 것이 못 된다. 南에 있으면 저절로 大韓民國의 체제를, 北에 있으면 共產體制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被動的 人間이 된다.

「내일의 삽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삶의 궤적은 그것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6·25때 어물어물-사실은 라디오 방송을 믿고 있다가 피난을 못갔다. 하숙집에 숨어 있으니 다발총을 멘 피로군과 반장이 와서 나오라고 했다. 따라갔다. 학교 운동장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찌르고 박수를 쳤다. 아마 박수를 치라는 눈치였다. 박수를 쳤다. 나 또래 학생들이 많았다. 나는 어디 아는 학생이 있나 하고 이리 저리 살폈다. 그러느라고 무슨 연설인지 딱 딱히 듣지도 못했다. 연설이 끝나자 누가 /“갑시다 동무, 김 일성 대학으로-” /그리고는 어깨동무를 했다. 어리둥절 했다. 모두 그랬다. 이래서 우리들은 김 일성 대학이 아닌 원산 근방의 어느 훈련소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다.¹¹⁾

정부에서 알리는 방송을 믿고 그대로 서울에 눌러있다가 피로군에게 체포되어 나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산군에 편입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 소설에 드러난다. 전선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람들도 被動的으로 체제를 강요받게 된 것이 分斷狀況의 한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역사의 흐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분단 상황 자체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일마저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든 일이라는 점은 분단 상황을 소재로 한 이런 文學 속에 간접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分斷狀況에 대한 폭넓고 깊은 사유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품이 가지는 感動의 폭이 좁은 것이 아쉽다.

IV

휴전이 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이후인 60년대에 발표된 「안나의 遺書」(1963·4, 現代文學), 「피」(1965·9, 新東亞), 「秋風嶺」(1967·5, 現代文學) 등에는 6·25 이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안나의 遺書」는 6·25의 와중에 한 인간이 어떻게 변모하고 파멸되어 가고 있는가를 제시한다.

11) <내일의 삽화>, 選集·3, p. 313.

남북 분단 후 <안나>의 가족은 월남한다. 월남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 생활이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6·25를 만났다. 전쟁중에 어머니를 잃고, 부산 피난중에 동생마저 잃었다. <안나>는 고아가 되어 살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지금껏 지켜오던 도덕과 삶의 방식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다방 레지에서 술집 작부로, 거기에서 다시 양갈보로 전전한다. 그런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고 동정은 커녕 양갈보라고 손가락질 했다. 그 때에 그녀는 항변한다.

전쟁으로 해서 나는 고아가 됐다. /배가 고팠다. 찢든 계집애가 살을 가릴 옷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안나라는 갈보가 됐다. /한끼 밥을 먹기 위해서 피를 뽑아 팔뚝, 나는 내 몸뚱이를 파 먹고 스물 여덟살을 살아 왔다. /주어진 한 생명을 성실히 살아온 죄가 갈보라는 직업에 있다면 그건 결코 내가 저야 할 죄가 아니다.¹²⁾

이 작품을 통하여 吳永壽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대를 고발·비판하고 있다. 전쟁으로 해서 고아가 되고 먹고 살아 가기 위해 갈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냉대하고 멸시하느냐는 <안나>의 항변의 목소리에는 작가의 생각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두 피난민」등의 작품이 6·25로 인한 파멸을 形象化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 주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고발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전쟁 후 10년이 지나도 그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 오 영수의 세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피」는 분단 상황을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국방부 정훈국 소속인 <김 충식> 소령은 6·25 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동생을 10여년만에 만난다. 생사를 모르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난 것은 다시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동생이 그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나타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것은 6·25 이전에 동생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6·25가 일어나자 행방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김 소령>은 아무래도 어떤 밀명을 띠고 내려온 간첩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보 관계의 기관에 있는 옛 부하를 통해 동생의 행적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간첩임이 드러난다.

<김 소령>은 어떻게든 동생을 자수시키려 했다. 그래서 일요일을 택해 동생을 조용하고 외진 곳에 데리고 갔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설득하여 자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으나 피를 나눈 형제끼리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조용하고 외진 산에 오르자 그들 형제는 점심과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김 소령>은 동생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삼열아, 난 너를 안고 싶다. 이 형의 품에 안겨라. 애원이다.” /“감상은 죄악으로 규정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흠? 넌 눈만의 색맹이 아니라 감정마저 얼어 붙었구나.” /“형의 그런 신과조

12) <안나의 遺書>, 選集·4, p.330.

에 얼어 붙은 감정마저 구역이 납니다!” / 김 소령은 주저없이 열구리에 찬 권총을 빼들었다. / 삼 열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두어 발 뒤로 물러 섰다. / 그러나 김 소령은 빼든 권총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 [중략] 어느 해 여름 장마로 해서 물이 부푼 앞 개울에서 멍질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내려 꼭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 같이 멍질줄 하던 이웃 또래들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구르고 있을 뿐이었다. / 이 때 어린 동생 삼열이 뛰어들어 형을 부둥켜 안고 칠센 하류에서 밀쳐 나왔을 때는 둘다 의식이 없었다. / 그 날 밤 의식을 돌린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 감격이 새롭다. / 김 소령은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조용히 눈을 뜬다. 그 새 삼열은 이미 십여 미터나 물러서서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 김 소령은 나직한 소리로, / 한번 더 말한다. 너와 나는 한 피다. 너무나 엄연한 사실마저 거부하겠는가? / “대아를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거부한다. 조국 해방의 대과업을 위한 투쟁만이 우리의 길, 그대도 군인이라면 피차의 이념에 충실하자.”¹³⁾

동생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김 소령>은 동생을 향해 한발 쓰고 스스로 자기자신을 쏜다. 차마 급소를 쏘지는 못하고 동생의 손을 쏘고 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형과 이런 형의 심중을 헤아린 동생이 죽은 형의 가슴에 엮드려 오열한다.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이겨낼 수 없어 자결하는 형과 형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확인하는 동생의 심중을 통해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소설이다.

이것은 분단 상황에 대한 성찰이 좀더 역사와 민족의 문제까지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제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분단 상황을 폭넓고 깊게 인식하고 그 극복을 모색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상식을 소설화한 것 이상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대신 오 영수 세계의 변모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秋風嶺」은 6·25 피난 때 추풍령에서 죽은 자식을 제대로 매장하지 못했던 부모가 휴전 후에 다시 무덤을 찾아 제대로 묻는다는 이야기다.

<그>와 <그의 부인>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길에 나섰다. 추풍령에 이르렀을 때 여섯 살 된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러나 제대로 매장할 경황이 없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가 연장도 없이 땅을 뚫다. 아이를 눕히고 나뭇가지를 꺾어다 덮고 돌을 그 위에 쌓았다. 행여 짐승이 해치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피난길에 나선 그들이었다.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에야 이 부부는 다시 이곳을 찾아 새로 무덤을 제대로 정리한다.

이 소설은 6·25 전쟁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안나의 유서」가 6·25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소홀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한 작품이라면 「秋風嶺」은 6·25의 상처를 수용하면서 담담하게 그 치유의 방법을 암시한 소설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피」는 분단 상황 이후 늘 문제가 돼 온 이데올로기와 혈연, 이데올로기와 民族

13) <피>, 選集·5, pp.58~59.

의 同質性에 대한 조화의 문제를 검증한 작품이다.

따라서 6·25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이후의 문제를 소설화하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五道 영감」(1966·6, 文學), 「새」(1971·8, 現代文學), 「환상의 石像」(1971·12, 月刊文學)은 분단에 따른 離散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다.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헤어진 가족들의 결함은 아득한 상태에 있다. 통일이 쉽게 될 상황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산가족들—특히 노인들의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다.

이북에 혈육이 있지만 통일이 되기 전에 자기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五道 영감」은 이북에 며느리와 손자를 두고 아들과 월남했다.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사하자 이남에서는 혈혈단신이 된다. 궁핍하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으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통일의 길은 아득하게 멀고 북에 두고 온 손자와 연결되는 문제가 그에게는 큰 일로 생각된다. 자기가 죽으면 후손도 없는 사람으로 처리될 생각을 하자 이 노인의 마음은 착잡해진다. 그래서 북에 있는 손자를 자기의 호적에 올리려 애를 쓴다.

아니, 내 말은 이거웨다. 자식놈은 전사했디요, 내마저 통일을 못보고 죽어 버리면 어케 되겠시요. 내 뒤가 없다 말이웨다. 그러니까니 내 말은, 이북에 있는 내 손자 놈을 여기 내 호적과 함께 올려 달라 이거웨다. 그래야만이 뎌에라도 아무게 자식, 아무게 손자하고 핏줄을 찾디 앙카시요. 다 같은 처디면서 그걸 글세 못해주겠다니 [중략] 내 나이 털십을 바라보는데 언제 죽을디 누가 알겠시요. 멧 백 니 넘어 혈육을 뻘히 두고서……내 덩말이지 자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웨다!¹⁴⁾

이산가족과 재결합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후손이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이 노인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보면 이 노인의 억지에서 우리는 분단과 이산의 비극의 한 단면을 본다.

「새」의 주인공 <나>는 이북에 가족을 두고 월남한 사람이다. 월남할 때는 쉬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한달이면 돌아오겠다고 가족과 약속했다. 그러나 20년이 되도록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20년간 그는 가족들 생각에 편만한 날이 없었다. 이런 그를 주변 사람들은 망향병의 발작이라고 귀잔을 주기도 한다. 그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생각이 오랫동안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새를 통해서 남·북으로 갈려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았다는

14) <五道 영감>, 選集·5, pp.146~147.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그에게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이복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고 새처럼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자신을 술로 달랜다.

생각을 좀 해 보라고. 지적에다 혈육을 두고 이십 년을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니…… 이 무슨 저주받은 백성이냐 말야. 잔 돌려. 부어, 가득. / 육십 노모를 두고왔어. 세 살짜리 갓난이와 아내를 두고 왔어. 한달이면 돌아온다고 했어. 자, 반계. [중략] 카아—나를 망향병의 발작이니 넘두리니, 새삼스럽다느니, 지치지도 않았냐니, 하고 [중략] 자 잔 돌려, 부어, 카아. 가슴에 피를 말려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린 이십 년……땀을 치고 피를 토해 죽어도 시원찮아. / 자, 쪽 들고 돌려. 무슨 소리. 괜찮대두. 가득 따라. / 동대문 시장에서 피복 장사로 수천 대를 모은 내 이웃 사람이 있었어. 안변 사람야. / 카아— 이 사람이 늘 한다는 소리가 어디 하늘이 무심하겠느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자, 반계. 출근 이렇게 이십 년 동안을 꼬박 독신으로 기다리다가 지난 가을 교통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 [중략] 근데, 그 친구 운명 직전까지 나도 곁에 있었는데, 마지막 말로 한다는 소리가 말야. 잔 쥐야지. 음, 됐어. 죽은 귀신에게야 설마하니 삼팔선이 없겠지 하고 눈을 감더군.¹⁵⁾

분단과 이산은 우리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에 따른 엄청난 비극과 희생과 고통은 우리 민족이 지닌 무거운 짐이다. 이런 문제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작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6·25의 상처가 준 아픔과 그 치유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산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분단 상황을 검증했다는 점은 「오도 영감」과도 비슷한 데가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작품 끝에 밝힌 대로 남북 이산가족찾기운동 적십자회담 선언 한 달 전에 발표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산의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세계는 다음 나온 「환상의 石像」에서도 탐색과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핏줄을 그리워하고 핏줄을 찾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요, 그것은 논리 이전의 문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작품 「피」에서 다루어진 주제인데 「환상의 石像」에서도 계속된다.

피는 어떠한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도 결코 이에 우선될 수 없는 그 이전 가장 순수한 것, 한 민족의 피는 그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수 있는 생명—복한 적십자는 쾌히 응하라. 거부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¹⁶⁾

이 소설이 발표될 무렵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실제로 가족의 상봉은 없었다. 그 후 14년이 지난 1985년 8월 처음으로 극소수의 이산가족이 재회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15) <새>, 選集·6, pp.175~176.

16) <幻想의 石像>, 選集·6, p.242.

이런 답답한 상황을 투영시킨 것이 이 소설이다. 그것을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생각해 본다는 데 비극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VI

오 영수는 지적, 인생적 성숙기인 30대에 분단 상황을 체험했으며, 그런 분단시대를 35년간 살았다. 분단시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분단의 의미와 성격, 우리 민족의 처지와 고통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나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를 소설로 형상화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45년 8월부터 1950년 6·25가 일어나기까지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심해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다. 이 소설들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따른 빨치산의 준동과 이를 토벌하는 경찰 사이에 끼어 희생당하는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해 놓고 있다.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기회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희생을 통해 분단 상황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는 소설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6·25 전쟁을 배경으로 죽음, 피난생활, 굶주림 등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소설화한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에서는 지적 능력이 있거나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보다 무식하고 가난한 서민들을 등장시켜 이들이 6·25 전쟁이 와중에 어떻게 희생당하는가를 제시하면서 분단 상황을 점검한 것이 이 계열의 소설이다.

셋째, 휴전이 되어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상처가 어느 정도 정리된 60년 전후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다. 이 소설들에서는 6·25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6·25에 대한 재음미, 6·25로 인한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있는가를 제기한 소설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작가는 이 소설들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소홀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면서 피(민족)를 강조하고 있다. 분단 극복은 민족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넷째,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의 재회 논의,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온 70년대초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생사여부와 재결합, 나아가 통일등 우리 민족이 당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산가족의 고통, 재결합에의 열망, 나아가 분단 상황의 극복에 대한 의지가 이 작품들 속에 투영돼 있다. 그러면서 분단의 극복은 이데올로기보다 피, 곧 민족애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암시를 보이고 있다.

오 영수는 인정세계의 묘사, 인간의 성선 옹호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 작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작가는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화한 일면이 있음을 보았다.

분단 상황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역사상 무거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화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다 간 오 영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분단 상황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분단 극복의 방법까지 모색될 수밖에 없겠는데 오 영수는 이 데올로기보다 민족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견해는 오 영수의 독창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미 일반화, 상식화된 방법이라는 데 그의 소설의 한계가 있다.

Summary

Situation of Country's Division and Embodiment into Literature -in the case of Oh Young-soo

Kim Young-hwa

Oh Young-soo(1914-1979) saw a tragic situation of country's division together with country's liberation at the age of 32.

Soon after this, he experienced 6·25 war, and at this time he served in the front line with the other literary men.

Around 1970, he also saw the question of reunion of families, which were scattered all over the South and North, being discussed through the Red Cross Mediation, and paid a concern a new on the South-North Subjects following the 7.4 Joint Statement.

He wrote the novels, deeply feeling and utilizing as a foundation of his works the tragedy and pain of our people inflicted by the division of land during 35 years of his living in the age of division.

Generally, such works can be classified and summarized as follows:

1) Such novels as "Wild Grapes", "Reminiscences" belong to this category, which are written on the life of common people who were sacrificing their lives sandwiched between Communist Guerrillas' activity and police force liquidating the guerrillas, with the period before 6·25 war for its background.

2) Such novels as "Two Refugees", "Frost Spring" also belong to this classification which are written on ruining of common peoples's livelihood itself, that is, the death and refugee life etc., with the background of 6·25 war.

3) There can be found those novels which reilluminate the meaning and the injury of that war and conceive positively of overcoming of country's division in the background of the beginning of 1960's which entered into the period of a little stability along with the end of the war. Such novels are "Anna's will", "Chupung Ridge"

4) The other novels are those which positively think of overcoming of the separated families' tragedy and of country's division with the background of 1970's in which a movement of scattered family reunion and 7.4 Joint Statement made an appearance.

"Bird", "Stone Statue of Fantasy" belong to them.

This writer embodied the above situations into literary works, examining how the situation

of the division gave pains our people and searching the ways for its overcoming. This means that the writer wrote the novels cherishing deep interest in the past history and present realities.